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50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4,1-1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4,1-13

우리는 재의 수요일 단식과 금육을 하면서 또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사순시기를 시작한다. 사순 시기는 사순 6주간 중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정화의 시기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 위해서 자신을 정화하는데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따르게 마련이다.

가정의 불화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 오기도 하고, 재산으로 시험하시기도하고, 건강으로 시험하시기도 한다. 또 반면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재물 유혹, 술 유혹, 담배 유혹, 컴퓨터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채팅하여 탈선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유혹, 맛있는 음식의 유혹, 노름의 유혹, 돈의 유혹, 잠의 유혹 등 우리는 수없는 유혹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악마의 자식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사순 시기는 그러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기이다.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완벽해 보이는 추장 자신의 내면에도 항상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손자의 손을 잡고 너의 마음 안에도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 해주었다.

추장은 궁금해 하는 손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 싸움은 두 늑대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 놈은 늘 이렇게 속삭인단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해라! 돈은 쉽게 벌어라! 맛있는 거는 배가 터지게 먹어라! 네가 갖고 싶은 것은 도둑질로 한 순간만 양심을 팔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너를 유혹하고 있단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 늑대는 너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돈은 힘들여서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 맛있는 것은 배고픈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네 것이 아니면 가지면 안 된다!’”라고 추장이 설명하자 손자가 추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안에는 항상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우리는 생활 안에서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까?

(수원교구 2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잠언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잠언의 간추린 소개

저자

이스라엘 국내외의 많은 현인들. 솔로몬의 이름으로.

집필 시기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유래하는 잠언들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부족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책은 기원전 5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로 정착되었습니다.

집필 형식

주로 솔로몬의 이름 아래 수집된 작은 모음에 다른 모음을 덧붙였습니다.

그중에는 이집트의 지혜 문학서를 직. 간접으로 인용한 부분도 있고, 외국인의 이름 아래 전해 오는 모음도 있습니다.

집필 목적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얻어 때로는 적대적인 현실을 극복하며 성공적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집필 내용

다양한 문학 양식과 문체로 쓰인 이 책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원래 종교와는 별 관계없이 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의 완전한 분리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러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이스라엘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됩니다. 올바른 종교심을 키우는 일이 지혜의 근본 목표인 것입니다.

공지사항

-2월 17일(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이 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매 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에 적극 참여 합시다.

-3월 3일(수요일) 개강하는 새 학기 성경공부(여정첫걸음)에 꼭 참여 합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8,1-11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 * 죄인인 인간과 사랑 자체이신 주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초대 하십니다.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초대받고 있는 나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으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정서현정정수 작곡

하느님 백성 자녀들이! 모두 모여라

우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야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 음 보-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